

2018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Human vs. Machine:
Psychology now

8.16 (목) 13:00-17:00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지하 2층 컨벤션홀



대외심포지엄 프로그램

13:00-13:10

개회사

김재휘
한국심리학회 회장

13:10-14:55

제1부

13:10-13:45

Value beyond the price : 인공지능과의 협력

송길영 부사장
다음소프트

물물교환 시대에서 화폐의 시대로 진화하며 시장은 확장되었다. 화폐는 사고파는 행위에 편리함을 더해줌과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동시에 가치를 한가지의 기준으로 압축하여 상품의 다면적 성상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빅 데이터와 IoT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가 공개되며 개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하는 맞춤 구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해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추론하여 인간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상의 수많은 선택에서 가격을 넘어선 가치의 본질적 탐색과 개인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의 제공을 위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3:45-14:20

마음은 기술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신(新)기술의 심리학을 위한 제언

장대익 교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현재 우리는 인류사의 흐름에 변곡점을 만들지도 모를 새로운 기술들(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유전체 편집기술)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신기술에 대해, 낙관주의자들은 기술 발전이 인류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 반면, 비판주의자들은 기술이 결국 인간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글로벌 차원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여론조사나 공학적 연구 및 산업적 활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학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다. 본 강연에서는 먼저, 최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전략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과 전망을 논의하고, 실제로 두 가지 신기술(인공지능과 유전체 편집기술)에 대해 본 연구실에서 수행한 진화심리학적 연구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4차 산업 혁명기에 대한 논의의 초점을 기술이나 산업 자체보다 인간 내부로 돌려야 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4:20-14:55

다른 형태로 '합리적'인 기계와 인간의 마음

서은국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똑똑한 기계의 독보적 특성들(정확성 등)은 생존과 유전자 복제를 위해 설계된 인간 마음의 궁극적 관심사는 아니다. 인간이 높은 지능을 갖게 된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타인의 보호와 도움 없이는 생존 할 수 없었던 미약한(self-insufficient) 한 생명체였기 때문이다. 타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적 교류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었고, 현재의 우리 또한 이 초 사회적인 뇌를 통해 세상을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 그래서 기계의 입장에서 보면 수량화하기 힘든 다양한 'soft'한 경험들(사회 비교 정보, 감정적 신호 등)을 인간의 마음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가령, 절대적 연봉이 낮아도 동료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이다 (Tversky & Griffin, 1991). 기계의 관점에서서는 허술한 판단이지만, 상대적인 사회적 지위가 생존 자원 획득과 직결되는 세상에 tuning된 사회적 뇌는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55-15:15

휴식시간

대외심포지엄 프로그램

15:15-17:00

제2부

15:15-15:50

The Metacognitive Tragedy of Fights and Failures

Lisa K. Son 교수

컬럼비아대학교 심리학과

Failure, or more accurately, the fear of failur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ach of us. Often, the fear of failure gives rise to quitting and a lack of confidence. Our research in metacognition, however, shows us that failure, itself, is merely an illusion. In the presentation, I highlight data illustrating common measures of failure, including slow learning, retrieval errors, and effort exertion. I also discuss results revealing that each of these measures is an indication of not failure, but rather, of success. Finally, the illusion of failure and its consequences are illustrated in the larger context of how metacognition – our thoughts about our own cognitive processes – has evolved in the face of technological advances. Pilot data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havior and a “failing” machine are presented as food for thought. In sum, whether the metacognitive relation between man and machine turns out to be a tragedy will be something for us all to contemplate.

15:50-16:25

심리학의 새로운 도전; 기계와의 동업

정경미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신장애 유병률은 약 25–30%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역적 시간적 및 경제적인 이유로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 이유도 있다.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로 정신장애의 치료 영역에서도 인터넷기반, 앱기반이나 VR 등 기술기반 치료 뿐 아니라 로봇이나 기계에 의한 치료까지 그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가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컴퓨터나 인공지능 전공자들에 의해 주도되기도 한다. 이런 현황은 치료의 확산과 보급에 있어 심리학자의 역할을 확대하고 실제 정신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방법을 용이하게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기여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개발된 방법의 질적통제와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

16:25-17:00

생명과 지능의 미래

이대열 교수

예일대학교 신경과학과

인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그를 실현하는 뇌의 기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지금보다 많이 향상된 미래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도 인간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깊은 관계를 맺어 감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술로 이용해서 충족하려는 인간의 욕구의 신경생물학적 기전과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으로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자기 복제를 통해 진화하는 생명체가 아닌 물리적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과 생명체에게 부여되는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

대외심포지엄 연자 소개



송길영 부사장
다음소프트

사람의 마음을 캐는 Mind Miner.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 있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수년째 해오고 있다. 나아가 여기에서 얻은 다양한 이해를 여러 영역에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주)다음소프트의 부사장이자, 다음소프트는 소비자의 온라인 의견을 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데 특화된 기업으로, 텍스트 마이닝, 대규모 정보탐색과 자연어 처리 등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글들이 담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및 한국BI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이자, 또한 오피니언 마이닝 워킹그룹(Opinion Mining Working Group)을 개설하여 기업에서의 데이터 마이닝 활용 연구를 이끌고 있다. 활자를 끊임없이 읽는 잡식성 독자이며, 이종(異種)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저서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 빅데이터에서 찾아낸 70억 욕망의 지도』(2012, 쌤앤파커스)와 『상상하지 말라 -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욕망을 보는 법』(2015, 북스톤)이 있다.



장대익 교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KAIST에서 기계공학으로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생물철학으로 석/박사를 받았으며 미국 터프츠대학교 인지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마쳤다.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간본성 및 생물철학 연구실을 만들어 인간의 사회성과 도덕성에 대해 이론 및 실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저서로는 『다윈의 식탁』, 『울트라 소셜』 등이 있다.



서은국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졸업 후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Ed Diener, Harry Triandis 교수의 지도를 받고 1999년 성격/사회 심리학 박사학위 취득하였다. 학위 후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심리학과에서 종신교수직을 받은 뒤, 2003년부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직 중이다. 주 연구 분야는 행복과 문화이지만, 최근 진화심리학적 관점과의 접목을 시도 중이며, 대표저서로는 『행복의 기원』이 있다.



Lisa K. Son 교수
컬럼비아대학교 심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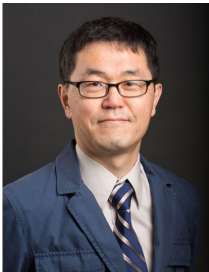
Dr. Son, Associate Professor of Cognitive Psychology and Chair of the Psychology Department at Barnard College, Columbia University, specializes in human learning and memory, and in metacognition. Her research focuses on how people learn, and on the optimization of long-term retention. She has studied metacognitive behavior in a range of populations, including normal adults, children, and monkeys. Receiving a BA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a Ph.D. from Columbia University, she has been a Visiting Member at Princeton's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and was, twice, named a Fulbright Scholar to South Korea. With the growing field, Dr. Son continues to expand her work on the complexities of how people learn, and believes that any knowledge gained in the scientific study of learning and metacognition will significantly improve education in general, for people of all ages.

대외심포지엄 연자 소개



정경미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임상심리학)를 취득후, U of Hawaii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를 받았다. 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발달장애연구 그리고 Johns Hopkins 대학 부속 Kennedy Krieger Institute에서 응용행동분석으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 Columbia 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에서 임상강사를 지냈다. 행동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자폐증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의 치료연구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동일 원리를 이용한 정상발달 성인들의 자기관리와 비만 및 당뇨 등 신체질환을 가진 성인들의 행동 수정에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ICT를 활용한 심리치료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연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다학제적 팀을 구성하여 행동주의에 기반하여 e-health를 구축하는데 gamification을 적용하는 device개발과 효과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대열 교수
예일대학교 신경과학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생리학으로 박사후 과정을 밟은 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과 로체스터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임한 후, 현재는 예일대학교 신경과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강화학습과 의사 선택에 관한 뇌의 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Journal of Neuroscience의 편집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eLife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뉴로게이저의 공동창업자이며 최고과학책임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지능의 탄생』 (2017)이 있다.

2018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Human vs. Machine:
Psychology now



8.17(금) 10:00-12:00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특별심포지엄

중년남성의 위기와 분노, 어떻게 도울 것인가

주관자.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장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0:00-12:00

중년기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중년남성들의 분노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중년남성의 분노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 중년 여성의 연구에 비해서 빈약한 편이다. 특히, 중년 남성의 분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현상이나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병리적 관점에서 진행되어 한국의 중년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심포지움에서는 중년남성의 위기와 이들의 분노경험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남성의 위기와 분노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그리고 관련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 상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전문가인터뷰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개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사회. 박관성 (국민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중년남성의 위기와 분노, 무엇을 경험하는가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2	중년남성의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양난미 경상대학교
3	중년남성의 위기와 분노,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은경 명지대학교
4	토론: 임지숙, 이화여자대학교	

분과 심포지엄: 상담

상담심리학을 융합한 인공지능 개발과 빅데이터 연구

주관자. 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0:00-12:00

본 심포지엄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담심리학의 지식과 서비스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소개하고 논의할 것이다. 최근 과학의료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심리평가와 개입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상담심리학이 지닌 인간심리의 이해와 치료방법의 지식과 기술을 최첨단 분야와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많은 분야에서 연구방법론이 빅데이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상담심리학이 어떻게 빅데이터 연구에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는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건강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자 한다.

사회. 주혜선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정신건강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김현정 고려대학교
2	인공지능과 상담심리학의 융합방법과 활용	김영훈 KISTI
3	토론: 연규진, 서강대학교 신호정, 아주대학교	

분과 심포지엄: 발달

다양한 환경에서의 아동 발달

주관자. 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0:00-12:00

사회문화적 환경은 아동의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 신체 등의 발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의 발달 특성 비교(남한 vs 북한),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아동들의 발달 특성 비교(국제 학교 학생 vs 일반 학교 학생, 해외 거주 아동 대상), 하나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발달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No	발표내역	발표자
1	북한 아동과 남한 아동의 발달 특성 비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2	이중 언어 사용 아동의 발달 특성 비교 (해외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양수진 이화여자대학교
3	이중 언어 사용 아동의 발달 특성 비교 (국제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4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통합적 접근	노경란 송파아이존
5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적 접근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6	토론: 정영숙, 부산대학교 이현진, 영남대학교 박성옥, 대전대학교	

분과 심포지엄: 법

경찰수사의 미래와 심리학

주관자.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0:00-12:00

범죄수사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범죄 증거 수집,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추리 재구성, 범인 검거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한다. 국민의 신뢰와 인권보호, 공정한 수사의 확립을 위해 경찰은 끊임없는 개혁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권보호 및 범죄수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심포지엄은 경찰수사의 미래와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경찰수사 절차에서 인권보호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심리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을 위한 심리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현행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서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표는 실체적 진실을 위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사회. 이미선 (동양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경찰 수사구조 개혁과 심리학의 역할	윤상연 치안정책연구소
2	피의자 신문	이형근 논산경찰서
3	진술조서를 활용한 피의자 진술 신빙성 판단	이재웅 한림대학교
4	토론: 이미선, 동양대학교	

분과 워크숍: 상담

인권 치료의 실제

주관자. 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0:00-12:00

인권 치료란 정신건강 현장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제시하는 분야이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인권의 원칙을 소개하고, 개개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을 평가하게 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인권 향상을 위해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교육 목적이 있다.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인간 고통의 사회적 원인들을 가르치며 내담자-치료자-사회의 관계성 속에 건강과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으로 역할을 확장하고자 한다.

사회. 김진희 (이화여자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인권 치료의 치료 실제	손창호, M.D. 행복정신건강센터 나눔정신건강의학과, 인권의학연구소

분과 워크숍: 소비자광고

빅데이터로 읽는 소비자 심리: 그 분석과 평가

주관자. 10분과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0:00-12:00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빅데이터' 열풍은 식을줄 모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를 차지하고 있다. 일상 생활 속에 인터넷, 모바일,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데이터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거나 파악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또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검색도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광고와 마케팅이 얽혀 있다.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이나 개인화, 추천 서비스들도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 워크숍에서는 데이터를 마케팅이나 서비스,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데이터를 통한 마케팅과 서비스 매커니즘의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실제로 R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예제를 통해 데이터 분석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임혜빈 (광운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빅데이터로 읽는 소비자 심리: 그 분석과 평가	박정아 현대카드 검색사업부

2018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Human vs. Machine:
Psychology now



8.17(금) 13:20-17:30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후1. 13:20분 시작 프로그램

특별심포지엄

다학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인의 자살 - 진단과 과제

주관자. 한국심리학회 공공정책위원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치솟기 시작한 한국의 자살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급증하였고 2011년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2011년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자살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다학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인의 자살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직업환경의학적 관점에서 한국 직업인의 자살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언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인의 자살,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유가족의 트라우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전략과 이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 권호인 (전주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직업인의 자살과 특징	김인아 한양대학교
2	언론인으로서 바라본 한국인의 자살	김광호 EBS
3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유가족의 트라우마	고선규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
4	근거기반 자살예방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유성은 충북대학교
5	토론: 전명숙, 보건복지부 허태균, 고려대학교	지승희, 고려사이버대학교

특별심포지엄

댓글의 소비자심리: 창의성, 팬덤, 그리고 자기의식

주관자. 한국심리학회 운영위원회, 10분과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증가와 최근의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댓글의 영향력, 효용, 가치와 문제점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 인터넷 댓글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발표와 심층적 토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발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맥락에서 댓글을 연구한 ‘창의적 소비 영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 유튜브 네트워크 분석과 댓글 분석’ 논문 발표와 온라인 뉴스라는 맥락에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한 팬덤의 이해: 공감과 작성의 차이’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댓글을 작성하는 소비자의 특성의 맥락에서 자기의식 정서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댓글효과 : 자기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의 효과’, 마지막으로 댓글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탐구한 ‘댓글의 사회적 가치 : 댓글의 영향력과 자정작용을 중심으로’의 4가지의 논문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교수) 4인을 모시고 발표 논문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표에 대한 청중의 질의와 발표자들의 응답시간 또한 있을 예정이다.

사회. 이병관 (광운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창의적 소비 영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 유튜브 네트워크 분석과 댓글 분석	안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한 팬덤의 이해 : 공감과 작성의 차이	임혜빈, 이병관 광운대학교
3	댓글효과 : 자기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의 효과	조현영, 전승우, 이선민 동국대학교
4	댓글의 사회적 가치 : 댓글의 영향력과 자정작용을 중심으로	서희정,부수현,이한빛 숙명여자대학교
5	토론: 부수현, 경상대학교 성용준, 고려대학교 김지호, 경북대학교 강정석 ,전북대학교	

특별심포지엄

산업현장의 외상후스트레스 관리

주관자.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장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6:20

심포지엄 1부에서는 기업 내 트라우마 유형과 이에 따른 심리사회적 영향,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증상과 회복과정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트라우마 위기개입과 심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고찰한다. 2부에서는 일회성 산업재해, 자살, 성폭력으로 나눠 기업 내 트라우마 유형별 심리적 개입의 원리와 절차를 소개하고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리적 개입과 조직차원의 관리전략을 논의한다.

No	발표내역	발표자
1	기업 내 트라우마 유형과 심리사회적 영향	주혜선 한국트라우마 연구교육원
2	기업 내 트라우마 유형별 심리적 개입 : 일회성 산업재해	주혜선 한국트라우마 연구교육원
3	기업 내 트라우마 유형별 심리적 개입: 성폭력	김진희 한국트라우마 연구교육원
4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분야 연구과제	김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5	PTSD 심리상담 진행 사례발표	김미연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근로자건강센터
6	토론 및 질의 응답	

분과 심포지엄: 상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쟁점과 정신건강 서비스:
존엄사, 생명윤리, 인공지능과의 공존에 대하여

주관자. 2분과 한국상담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7:30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인해 사회, 산업경제,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하지만 발전의 속도가 빠른 만큼 인간은 새로운 심리적 반응에 매일 적응해야 하고 인간과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그 효과가 미처 검증될 여유도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인간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윤리적 쟁점들에 대하여 인문사회과학계, 의료계, 법조계, 과학계, 윤리학계와 정부가 열린 토론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심리학, 특히 정신건강분야의 심리학은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포럼에 정신건강분야의 심리학이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쟁점들은 무엇인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2	연명의료중단과 생명결정권에 관한 윤리적 쟁점들과 정신건강서비스	정재우 카톨릭대 생명대학원
3	인공지능과 인간의 윤리적 공존: 정신건강심리학의 역할	김영훈 KISTI
4	토론: 이상민, 고려대학교 양난미, 경상대학교	유영권, 연세대학교

분과 심포지엄: 사회및성격

친사회적 행동의 심리학

주관자. 4분과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만연한 인간성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과학의 연구들은 인간이 다양한 형태의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이에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에서는 인간이 보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기원과 원리를 탐색해볼 수 있는 심포지엄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영장류 연구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의 진화적 기반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양 철학의 도덕성에 대한 접근 방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심리학의 동서양 비교 연구는 물론 사회계층에 관한 최신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심포지엄을 구성하였습니다.

사회자. 나진경 (서강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영장류의 친사회성과 공정성	김예나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연구소
2	도덕의 본유성과 통합성: 도덕성에 관한 접근의 동서 회통	조금호 서강대학교
3	사회 문화 심리학점 관점으로 바라본 친환경 태도와 행동의 예측 요인	엄기민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4	사회 계층에 따른 상보적 믿음과 협동 행동	최종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분과 심포지엄: 발달

Uniquely Korean Children의 발달 특성 - 척도를 중심으로

주관자. 5분과 한국발달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한국 아동만의 독특한 발달적 특성을 인지, 언어, 정서사회성, 운동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용 지능검사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웨슬러 유아용 지능검사(K-WPPSI)에서 나타난 한국 유아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고, 수용 및 표현 언어 척도에서 나타난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후 16일부터 42개월까지의 영유아의 인지, 언어, 운동, 정서사회성 등을 측정하는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3판(K-Bayley-III)을 통해 한국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미국영유아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사회정서평가검사(K-ITSEA) 척도에서 나타난 한국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K-WPPSI에서의 한국 아동의 특성	박혜원 울산대학교
2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조숙환 서강대학교
3	K-Bayley-III에 나타난 한국 영유아의 발달 특성	이순행 인간발달복지연구소
4	사회정서평가검사(K-ITSEA)에서의 한국 아동의 특성	박진아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
5	토론: 채진영, 전북대학교 이경숙, 한신대학교	

분과 심포지엄: 문화및사회문제

사이버범죄 동향과 심리학적 이해

주관자. 7분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지난 20여 년간 한국인의 삶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재편되었다. 지도상에 표시되지도 않는 이 공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인의 삶에서 사이버 공간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확장된 공간의 크기만큼 한국인의 삶은 편리하고 다양해졌지만 부작용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기초한 사이버범죄는 일찍부터 심리학의 관심대상이었고 해킹 이외에도 사이버 불링·성폭력·명예훼손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찰과 사회의 대응을 비롯하듯 사이버범죄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수법, SNS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댓글공작과 가짜뉴스의 범람,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 등은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사이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실무자와 심리학자들이 뜻을 모아 최근의 사이버범죄 동향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윤상연 (치안정책연구소)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사이버공간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한민 우송대학교
2	해커 프로파일링을 위한 사례 분석	김범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3	해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신상화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4	딥웹상 아동음란물 이용자의 특성 분석	윤상연, 강용길 치안정책연구소
5	나는 왜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됐을까?	신지호 치안정책연구소
6	토론: 김기범, 경찰대학	

분과 심포지엄: 여성

여성폭력,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한 모색

주관자. 9분과 한국여성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VAW, gender-based violence)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폭력을 일컫는 말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이 이에 속한다. 1993년 제 85회 유엔 총회에서 여성폭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로 규정지어진 바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은 성별화된 범죄로써, 본질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이를 유지시키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미투운동이 사회운동처럼 번지면서 데이트 폭력,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심포지엄은 여성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안정광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

No	발표내역	발표자
1	가정폭력에 기인한 인명피해,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2	데이트 폭력 피해자 도움 행동에 관한 연구	이나림,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관한 인식	홍영은,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4	토론: 고선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분과 심포지엄: 중독

중독영역에서의 평가의 활용

주관자. 13분과 한국중독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중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중독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중독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중독의 정의에 대한 논쟁과 회복의 정의에 대한 논쟁도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중독문제에 대한 평가의 영역도 논쟁 속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중독문제의 평가에 관련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자들을 초대하여, 중독문제 평가에 있어서의 이론적 이슈와 함께 새로운 접근들을 접하고, 이를 임상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성민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청소년중독의 (자발적) 회복행동 지표 개발: 도박문제를 중심으로	권선중 침례신학대학교
2	뇌영상기법을 적용한 행동중독간 감별진단 지표 개발	석지우 호남대학교
3	토론: 전영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성만, 한동대학교	

분과 심포지엄: 측정평가

질적연구마당

주관자. 15분과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3:20-15:20

심리학 분야에서 질적 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양적방법은 가설의 검증에 적합하지만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론의 생성에서는 질적연구에 비해서 취약하다. 심리학 연구에서 이론의 서구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조명하는 이해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질적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 심포지엄은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질적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논의하여, 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심리현상에 대한 질적 연구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사회. 도승이 (성균관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살인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해숙 광주 스마일센터
2	식욕억제제 복용 다이어트 여성의 현상학적 연구	김선미 전남대학교
3	대화로서의 질적연구: 일본의 연구사례	ITO Tetsuji ¹ , 오선아 ² Ibaraki University ¹ , Kyoai Gakuen University ²
4	토론: 한규석, 전남대학교	

오후2. 15:30분 시작 프로그램

융합 심포지엄

위기 가정과 양육을 지원하는 심리학적 접근

주관자. 9분과 한국여성심리학회,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영유아임상연구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5:30-17:30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감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위기 가정과 위험에 처한 양육실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위기가정과 양육에 대한 주요 요인을 밝히거나 증거 기반적으로 조기에 적절히 개입하는 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태이다. 그동안 한국여성심리학회는 위기 가정과 양육에 대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왔으며 그로인해 건강한 가정과 양육의 방향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여성심리적 관점으로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려는 학문적 노력을 해왔다. 또한 한국임상심리학회 산하 영유아임상연구회에서는 영유아와 부모, 그리고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달임상적 문제에 대한 상담적 접근에 대해 학술과 사례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찾아왔다. 그러므로 이번 융합심포지엄은 두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위기가정과 양육에 대한 최신의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이 주제가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주제로 다루어질 것이며 특히 이는 한국여성심리학회에서 창립된 여성주의상담자의 역할 정체성면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첫 번째로는 위기가정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을 지원하는 심리적 접근이 소개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남편을 통한 산후우울 산모와 가정에 대한 조기개입과 회복 상담프로그램 개발과정과 그 효과성에 대한 발표가 소개된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지원, 개입이 소개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저소득층의 부모가 겪는 건강한 양육과 가정환경 조성의 어려움과 개입 접근에 대해 소개될 것이다. 다양한 위기로 양육과 가족의 건강이 위협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한 양육과 가정으로의 회복의 방향을 찾아가는 학문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 이해란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정서학대 예방을 위한 다차원적 부모개입 방안	김도연 마인드풀니스 심리상담연구소
2	남편을 통한 산후우울 개입 상담 프로그램 개발	김용훈, 이경숙 한신대학교
3	저소득층 양육에 대한 발달상담적 접근	옥 정 서울사이버대학교
4	토론: 이경숙, 한신대학교 박경순,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분과 심포지엄: 임상

제도와 심리서비스: 현재와 미래

주관자. 1분과 한국임상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5:30-17:30

최근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심리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심리학적 평가와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심리학자들의 활동범위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심리전문가들은 심리학적 전문역량 외에도 자신이 제공하는 심리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심리서비스와 관련된 제도나 규정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심리서비스와 연결되는 제도나 규정이 마련되고 수정되는 과정에도 심리전문가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임상심리전문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심리서비스의 실례를 통해 제도, 규정, 심리서비스 간의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아울러 활동 장면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의 필요성과 심리서비스 관련 규정 및 제도 구축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심리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최기홍 (고려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정신건강복지법과 심리서비스	김혜연 행복정신건강센터
2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와 심리서비스	김태경 우석대학교
3	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심리전문가의 활동	김상준 법무법인 KS&P
4	'서울시 심리지원 조례' 제정 사례로 본 공적 심리지원 제도 마련에의 심리전문가 참여	박중규 대구대학교
5	토론: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이진옥, 법무법인 율촌	

분과 심포지엄: 문화및사회문제

게임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주관자. 7분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5:30-17:30

게임기, 컴퓨터, 스마트 폰으로 즐기는 디지털게임은 전세계 남녀노소 25억명이 이용하는 대중문화가 되었다. 디지털게임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양한 부작용(게임중독 혹은 과몰입)에 대한 연구 및 병리학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은 디지털문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에 부작용의 문제와는 별도로 게임이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현상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심포지엄에서는 게임을 취미와 직업 그리고 예술 활동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이론적 모델을 탐색하고, 현상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사회.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No	발표내역	발표자
1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 선택모델을 중심으로	조성민 마음산책 상담심리센터
2	직업으로서 게임을 선택한 사람들: 게임개발자에서 스트리머까지	박가열 중앙고용정보원
3	예술로서 게임을 선택한 사람들: 게임음악을 중심으로	곽용신 플레이직
4	토론: 손영미, 건양대학교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김성곤, 한국게임문화재단	

분과 심포지엄: 코칭

심리학 기반 코치의 전문성 발달

주관자. 14분과 한국코칭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5:30-17:30

심리학 기반 코치는 타 분야와는 구별되는 조력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정립해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성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접목하여 체계적으로 코치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전문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전문성 발달과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해왔다. 경험의 양과 질,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deliberate practice)'과 '그릿(grit)' 등 다양한 변인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개인의 수행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이 갖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심포지엄에서는 전문성 분야 주요 개념과 관련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코칭심리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심리학 기반 코치가 가진 전문성의 특징을 바탕으로 전문가로서의 코치 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 이수란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그릿(Grit)과 전문성 발달	이수란 백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전문성 발달	김유진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3	코치의 전문성 발달	이희경 피비솔
4	토론: 탁진국, 광운대학교 정은경, 강원대학교	

분과 워크숍: 법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타당도 평가

주관자.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5:30-17:30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되면서 아동이 법정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물적, 인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 워크숍은 진술인으로서의 아동의 인지적,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고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 CBCA) 분석을 기초로 한 진술신빙성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 이미선 (동양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아동의 인지적 발달적 특성	이승진 건국대학교
2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인지적 편향	이미선 동양대학교

분과 워크숍: 측정평가

Mplus를 활용한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및 활용: 3단계 접근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주관자. 15분과 한국심리측정평가학회
일 시. 2018년 8월 17일(금) 15:30-17:30

본 워크숍에서는 최근 사회과학에서 사람중심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의 하나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analysis)의 개념 및 활용방안이 설명될 것이다. 특히, 본 워크숍에서는 잠재계층모형의 적용 및 활용으로써 실제 경험 자료를 M-plu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예시가 제시될 것이다. 예시가 제시되는 과정에서 M-plus의 프로그램 코드를 보여줌으로써 참가자들이 잠재계층모형을 자신들의 자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잠재계층분석에서 잠재계층의 분류 및 잠재계층의 예측 과정에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이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의 오차가 반영되지 못하여 분석 결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의 정확도를 반영하는 새로운 방안(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다. 본 워크숍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법과 부가적인 변수를 활용한 3단계 접근법이 설명될 것이다.

No	발표내역	발표자
1	Mplus를 활용한 잠재계층모형의 추정 및 활용: 3단계 접근법의 활용을 중심으로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2018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Human vs. Machine:
Psychology now



8.17(토) 10:00-12:00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특별워크숍

근거기반 트라우마 심리치료

주관자.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장

일 시. 2018년 8월 18일(토) 10:00-12:00

트라우마 사례의 주요 심리적 증상과 회복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치료적 원리와 기법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심리치료들을 중심으로 주요 치료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No	발표내역	발표자
1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트라우마의 이해<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경험들- 트라우마 유형에 따른 주요 심리적 증상-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2. 근거기반 트라우마 심리치료의 소개<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적 접근의 이해: 안정화와 기억처리의 주요 근거기반 트라우마 심리치료- 외상 유형별 상담전략- 상담자 간접외상 스트레스와 소진예방을 위한 전략	주혜선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분과 심포지엄: 문화및사회문제

한국인의 토착심리: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주관자. 7분과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8일(토) 10:00-12:00

본 심포지엄은 변화하는 시대에 한국인 부모자녀관계가 나타내는 특징과 영향에 주된 관심을 갖고 구성되었다. 부모자녀관계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 성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로는,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불효에 대한 지각과, 입장을 바꾸어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로는,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 행동 특성으로서 자기효능감, 효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논의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박영신 (인하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노인이 지각한 성인 자녀의 불효에 대한 지각: 성별, 배우자 유무별	전성숙, 정갑순, 박영신 인하대학교
2	중년 성인의 노부모 부양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조은형, 박영신 솔샘나우리센터
3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효도: 부모자녀관계와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영향	김정실, 박영신 논곡초등학교
4	부모 존경 및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손주연, 박영신, 배용순 송천초등학교
5	토론: 오현숙, 한신대학교 이장주, 이라크디지털문화연구소	

분과 심포지엄: 건강

Hightechnology 시대의 건강심리학

주관자. 8분과 한국건강심리학회
일시. 2018년 8월 18일(토) 10:00-12:00

인공지능, IoT등을 필두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사업은 단연 헬스케어 산업으로 기술 발달에 힘입어 건강 관리, 조기 개입, 질환 예측과 같은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개인 맞춤형 된 건강 관리 시스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본 분과 심포지엄에서는 흐름에 발맞춰 현재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화 된 심리치료 및 심리 측정 방법인 VR을 통한 심리치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심리치료, 휴대용기기를 통한 심리생리학적 데이터 측정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사회. 최승원 (덕성여자대학교)

No	발표내역	발표자
1	불안을 경감하기 위한 가상현실의 활용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2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역기능적 도식 및 기분 조기개입을 위한 심리치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검증	허지원 중앙대학교
3	머신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불면증 진단평가 및 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	서수연 성신여자대학교

2018 2018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제72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리학, 인간과 기계의 마음을 말하다

Human vs. Machine:
Psychology now



8.17(토) 13:30-17:30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특별워크숍

계슈탈트 표현예술치료적 접근의 Grounding 작업

주관자.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장

일 시. 2018년 8월 18일(토) 13:00-17:00

본 워크숍은 최근 신체적 질병과 심리치료 영역에서 대화치료의 대안적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예술 치료와 심리치료의 통합을 시도하여 발전된 계슈탈트 표현예술치료를 적용하여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Grounding작업으로 진행된다.

Grounding 작업은 지금-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몸의 감각과 움직임을 통하여 드러나는 메시지와 창조성을 알아차리고 또 이를 접촉하는 것을 목표로, 1) 몸의 중심 탐색 및 기초 다지기, 2) 그림 그리기, 3) 나무와 바람의 작업을 통한 환경과 접촉하기, 그리고 4) 경험 나누기로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언어화가 어려운 보다 깊은 심층에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체험하는 동시에, 트라우마, 신체화, 우울, 불안 등의 증상 완화 및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성인, 노인 내담자들,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o	발표내역	발표자
1	계슈탈트 표현예술치료적 접근의 Grounding 작업	유계식 소열심리상담센터

※ 본 프로그램 사정상, 사전등록 시 선착순 50명 접수 받습니다.

분과 심포지엄: 학교

미래 초중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학습(SEL)의 이해와 개입

주관자. 11분과 한국학교심리학회
일 시. 2018년 8월 18일(토) 13:30-15:30

사회정서학습은 학교심리학 분야와 인접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인성교육의 실천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사회에서도 학교나 상담 장면에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그 시사점이 클 것입니다. 이번 학교심리학회에서는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한 사회정서학습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정서학습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최근 연구들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의 또래관계 네트워크 변화를 통해 살펴본 사회정서학습의 효과성 연구를 살펴볼 것이고,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교육적 함의 및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미래의 실천적 함의와 연구에의 방향성을 확립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김영아 (한양대학교 상담센터)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사회정서학습 이론과 프로그램의 활용	류정희 광주대학교
2	네트워크 변화를 통해 살펴본 사회정서학습의 효과 분석	문가희 인천 만월 초등학교
3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사회정서학습의 교육적 함의와 실천방안	이선경 고려대학교 두뇌동기연구소

특별프로그램

심리학 Creator와의 만남

일시. 2018년 8월 18일(토) 12:30-13:30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궁금해 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심리학 정보들이 넘쳐난다.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심리학을 전공한 후 학문적 심리학의 기초 아래, 팟캐스트, 교양 서적,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 creator들이 있다. 이 행사에서는 심리학 creator를 초청하여 그들이 심리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심리학 전공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심리학 전공자들의 미래 경력 개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No	발표내역	발표자
1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	이서현 에브리마인드 팟캐스트 [서늘한 마음썰]
2	심리학, 쓰고 먹고 살기	조명국 멘탈경험디자인 MUX 팟캐스트 [심리학X]
3	심리검사랑 게임 만드는 이야기	이소라 인사이트(주) 연구개발팀 팟캐스트 [심리학X]
4	토론 및 질의응답	

※ 점심 다과제공